

동반성장 관련 국제적인 동향 파악

- 홍석일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I. 출장 개요

1. 출장자

- 홍석일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2. 출장기간

- 2011년 6월 21일 ~ 28일 (7박8일)

3.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 벨기에 브뤼셀
- 영국 런던
- 일본 도쿄

4. 출장목적

- 동반성장 관련 국제적인 동향 파악

- globalization의 진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공급자 관리(SCM)에 대한 국제기구의 최근 동향 파악
-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평가기관의 SCM 평가에 대한 최근 동향 파악
- 일본의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공정화 및 활성화 노력 파악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과 관련된 최근 동향 파악

5. 출장일정

| 일자 | 방문처 | 면담자 |
|------------|---|---|
| 21일 (화) | 서울 → 파리 이동 | |
| 22일 (수) | OECD | - Antonella Noya (Senior Policy Analyst,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Manager of the OECD Forum on Social Innovation) |
| |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 Cody Sisco (Manager, Advisory Services) |
| 23일 (목) | 파리 → 브뤼셀 이동 | |
| | Sustainalytics | - Hans-Ulrich Beck (Global Director, Research) |
| | EC | - Kiril Nikolov (Policy Officer, Co-operatives, Mutuals, CSR and Support of Tourism Industry) |
| 24일 (금) | 브뤼셀 → 런던 이동 | |
| | FTSE Group | - Arisa Kishigamy (analyst, Responsible Investment Unit) |
| | SEL(Social Enterprise London) | - Mei Yee Hui (Business and Research Manager) |
| 25일 (토) |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 - Maggie Sobiech (HelpDesk Member) |
| | Bike Works | - Jim Blakemore (Director) |
| 26일 (일) | 런던 → | |
| | → 서울 → 도쿄 이동 | |

| | | |
|------------|-----------------|--|
| 27일 (월) | (財)中小企業總合研究機構 | - 渡邊文夫 (研究部 研究部長) - 内山 崇 (研究部 第1研究室長) |
| | (財)全國中小企業取引振興協會 | - 古田中 孝一 (取引斡旋 coordinator) |
| 28일 (화) | 도쿄 → 서울 이동 | |

II. 출장 결과 보고

1. globalization의 진전과 책임 있는 공급자 관리(SCM)

□ globalization과 supply chain의 변화

- 세계 각국의 경제 개방화, 무역 자유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완화, 기술 진보 등에 힘입어 거래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경제의 globalization이 빠르게 진전
 - 특히 최근 들어 globalization의 규모와 속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생산효율성과 원가절감을 위한 세계기업들의 국제적인 outsourcing과 offshoring 확산



- 또한 기업들은 높은 인구 증가,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시장 등 신시장 진출 노력과 기술인력, 기술적 전문 노하우 등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 확보 노력을 도모하면서 globalization을 적극 추진

○ 그 결과 기업의 supply chain이 국제화 되면서 GVC(Global Value Chain)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함께 책임 있는(responsible)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고조

- 효율적 관리는 소수 공급자 의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면서 세계적 가격우위 보유 공급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측면

- 책임 있는 관리는 GVC를 통해 국제적인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주로 다국적기업)이 공급자의 불법적 기업행태 방지 등 GVC 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 기업의 책임 있는 GVC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증대

- OECD에서는 OECD Guidelines for MNE의 개편을 위한 제10차 OECD Roundtable on Corporate Responsibility(2010. 6. 30 ~ 7.1)의 주제 중 하나로 supply chain을 채택

- EC에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책임 있는 GVC 관리를 포함한 CSR로 보고 이를 통한 기업활동의 신뢰 구축을 추진 중

- Sustainalytics, FTSE 등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평가기업의 평가 결과를 자산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규모가 2002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1조 달러를 기록

□ OECD Guidelines for MNE에 관한 2010년 보고서

○ OECD에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다국적기업(MNE)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OECD Guidelines for MNE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

- 2010년 보고서에서는 OECD Guidelines for MNE의 개편을 위한 제10차 OECD Roundtable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논의 내용을 한 파트로 취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책임 있는 supply chain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룸
 - OECD Guidelines는 ①MNE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②the UN Global Compact와 함께 국제적 공감대 형성, ③정기적으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 형성, ④NCPs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MNE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체제 구비 등의 이유로 책임 있는 supply chain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

- 책임 있는 supply chain 관리의 주요 내용
 - 정확한 정보 확보 : 품질 관리 등을 위해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순히 1차 공급자뿐만 아니라 그 이하 공급자의 환경, 근로 등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확보
 - 고용 및 노사관계 : 개도국을 중심으로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위반, 아동 고용, 부적절한 건강이나 안전 보호 등 국제적 또는 개별국 정부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
 - 환경 : 독성물질 배출, 수자원 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
 - 경쟁과 뇌물 : 뇌물을 통한 납품 비리, 정부기관에 대한 불법행위 등 비경쟁적 요소에 대한 관리
 - 소비자 이해관계 : 외부 supply chain에 대한 관리는 제품의 내용, 정확한 정보 공개 등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품 리콜,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과학·기술 :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술이전 등을 통한 GVC 관리는 국

가경제 발전에도 기여

□ BSR의 Beyond Monitoring Working Group

-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경영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컨설팅 회사로서 본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분야에서 두각
- BSR에서는 산업포럼의 형태로 Beyond Monitoring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sustainable supply chain 전략을 모색
 - Beyond Monitoring Working Group은 supply chain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ell Inc., Electrolux AB, Ford Motor Company, Gap Inc., Starbucks Coffee Company, Varner Group 등이 참여
- BSR이 Beyond Monitoring Working Group과 공동으로 작업한 ‘Continuous Improvement Partnership Approach’(2010. 10)에 따르면 기업과 공급자 사이의 supply chain partnership에 대한 실제적 접근방안 모색
 - supply chain sustainability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기업과 공급자의 공유된 비전 창출, 관리 시스템의 현재 역량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계획의 추진과정, 관리 시스템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설명
 - Partnership Approach는 사업에 있어 상대적 중요성,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 공유된 가치와 철학, 기존 협력 프로그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 파트너 선정
 - 보다 나은 파트너십을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 증대, 더 높은 기준 설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2차 이하 공급자로의 확산 등이 요망

2. SRI 평가기관의 SCM 평가

□ SRI 평가기관의 ESG 평가시장 지속 확대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포함하여 평가, 관리되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조 달러 초과(FTSE 자료)
 - ESG를 포함하여 평가, 관리되는 자산의 규모가 2002년 2.6조 달러, 2006년 3.6조 달러, 2008년 6.8조 달러에서 2010년에는 10.1조 달러로 지속 증가
 -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아직 초기 단계
 - 이러한 추이는 각국의 기관투자가, 정부, 국제적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기업 가치와 성장에 ESG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 앞으로도 기업의 supply chain 관리를 포함한 ESG 관련 평가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그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연기금의 장기적 관점 투자 확대, 지분 보유자의 경영참여 요구 증가, 중장기적 기업성과에 ESG 이슈의 연관성 인식 증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흥투자대상국 기업에 대한 ESG 요소에 대한 정보 수요 증가 등

□ Sustainalytics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제적인 투자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sustainability 연구와 분석을 추진
 - RI(Responsible Investment) 시장에 대한 20년 정도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

- 사용자들이 산업 내 ESG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ESG 지수를 통해 기업들을 분석
 - 기업 데이터, 미디어 보도, NGO 데이터, 공공기관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연구·분석하고 해당 기업의 피드백을 통해 작업 추진
 - Sustainalytics 모델은 60~100개의 지수로 구성되어지며, 영향도에 따라 부문별로 가중치 부여
- 세계시장의 각 증권에 대한 ESG 연구·분석 결과를 Sustainalytics Global Platform을 통해 투자관리자,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도록 제공

□ FTSE Group

- Financial Times와 the Stock Exchange가 소유주인 독립회사로서 증권시장과 관련된 지수 및 데이터를 작성, 관리, 서비스
 - 매일 12만개 이상의 지수를 관리하고 전세계 77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FTSE 지수를 참고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규모가 3조 달러 수준
-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2001년에 FTSE4Good Index를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 그동안 FTSE4Good 시리즈를 계속 발표해 왔으며, 최근 새로운 시스템인 FTSE4Good ESG Ratings 모델을 도입
- FTSE4Good ESG Ratings 모델은 기업의 ESG 활동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위험을 분류하고 평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활용도 제고

< FTSE4Good ESG Ratings 모델의 구성 >

| 부 문 | | 분 야 |
|-----|------------|-------------------|
| 전반적 | 환경적 | 환경 관리 |
| | | 기후 변화 |
| | 사회적 | 인권 및 노동권리 |
| | | supply chain 근로기준 |
| | governance | 반뇌물 |
| | | 기업 governance |

○ supply chain 관리는 사회적 부문의 supply chain 근로기준 분야에서 주로 취급

- 세부 내용은 ILO 근로기준, 건강과 안전, 근로시간, 임금, 훈련절차, 구매 과정 등이며 관리 시스템, supply chain 모니터링, 성과 보고 등을 공공보고와 관련하여 취급

□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품 엔지니어링과 기술개발, 마케팅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

○ 그러나 ESG와 관련된 평가에서는 아직 다른 국제적 기업들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인식

- 실제 최근 FTSE Group의 FTSE4Good ESG Ratings 결과를 보면, 전반적 평가에서 한국은 2.31로 글로벌 평균 2.76과 일본의 2.63보다 낮은 평가

- 특히 supply chain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 함께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ESG와 관련된 RI를 늘이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대

의 홍보와 communication이 중요

3. 일본의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공정화 및 활성화 노력

□ 거래관계 공정화·적정화

- 일본의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서 차지하는 하청거래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공정한 하청거래가 상존
 - 親事業者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인하 등의 불공정행위 도모
 - 최근 經濟産業省의 한 관료는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강점으로 지적되어 온 ‘擦り合わせ’ 기업문화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어두운 측면을 강하게 지적 (古賀茂明, 「日本中樞の崩壊」, 2011. 5, pp. 122~125, 講談社 발간)
- 일본 정부는 교섭력이 약한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親事業者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을 운용
 - 2010년도 中小企業廳이 동법에 의거 약 25만 개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고 8,720건, 개선지도 977건, 公正取引委員會 조치청구 4건의 실적
- (財)全國中小企業取引振興協會는 2008년 4월부터 中小企業廳의 위탁을 받아 하청거래에 관한 ‘驅け込み寺’¹⁾ 기능을 가진 下請適正取引推進センター를 설치하고 전국의 都道府縣協會와 협력하여 하청거래 적정화 사업을 전개

1) 일본의 과거 역사에서 문제가 있는 남편으로부터의 시달림에서 도망 온 여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특권을 가졌던 절로서,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에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담하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비유적으로 설명

- 각종 상담 : 중소기업이 기업간 거래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원이 상담하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
- 신속한 분쟁 해결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외분쟁해결(ADR) 수속을 이용하여 전국에 등록된 변호사가 기업이 속한 지역에서 조정수속을 진행
- 하청가이드라인의 보급개발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하청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청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연대하여 전국 지역별로 개최
- 2010년도에 동 사업에 의한 상담건수가 4,468건이며 그 중 51건이 ‘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송
- 이밖에도 (財)全國中小企業取引振興協會에서는 하청거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청거래 개선 강습회,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 세미나 등을 실시
 - 하청거래 개선 강습회 : 1982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親事業者의 자재구매 등 조달담당자를 대상으로 ‘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과 ‘下請中小企業振興法’에 대한 보급 확산 도모
 -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 세미나 : 실무경험이 부족한 자재구매 등 조달담당자를 대상으로 ‘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과 외주(하청)거래 기본계약서 등에 대한 실무적 내용 전수

□ 거래관계 활성화

- 대기업과 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아웃소싱 등에 따라 거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알선사업을 적극 추진
- (財)全國中小企業取引振興協會는 전국 47개 都道府縣協會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거래알선사업을 실시

- Business Matching Station : 인터넷의 DB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주기업과 발주기업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주기업이 최적의 수주기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
 - 정부의 예산지원사업으로서 시스템의 등록, 이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무료
 - 거래 matching, 비즈니스 파트너 검색, 기업정보의 홍보, 관공수 정보의 제공 등으로 활용
 - 현재 23,000개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발주기업이 5,000~6,000개사 정도
- 긴급광역상담회 :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구조조정, 도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거래환경 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 소재 (하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단위의 상담회 개최
 - (財)全國中小企業取引振興協會에서 거래알선 coordinator를 파견하고 현지 都道府縣協會와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關東 5縣, 中國 5縣, 四國 3縣, 九州 7縣 등 광역지역단위로 진행
- 都道府縣協會의 거래알선 : 상세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알선사업을 추진

4.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관심 확대
- OECD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과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hip)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접근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수단인 finance, market-access, training, network & partnership을 중심으로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 EC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유럽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 일본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유럽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으나 경제적 격차 및 지역간 격차 확대에 따라 관심이 증대되는 추이
- (財)中小企業総合研究機構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와 관련하여 최근 ‘我が國の社會起業家に係る事例研究’(2009년)와 ‘社會起業家と自治體等の協働による地域活性化の新たな展開に関する調査研究’(2010년)를 수행

□ SEL(Social Enterprise London)

- SEL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회원사가 2,000개사에 도달
- SEL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 사회적 기업 지원 및 개발
 - 리더십 개발과 관리
 - 재무관리와 자원관리
 - 사회적 영향 평가
 - 신시장 창출
- London Development Agency와 London Councils를 통한 재원이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정부의 예산 감축에 따라 지원이 20% 정도 삭감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익자 부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익원의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 현재 영국 중앙정부는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Social Enterprise Unit을 통해 Social Enterprise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기업사례

- SEL에서 소개받은 런던시 소재 2개의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 인터뷰 과정에 2개의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장과 직원들이 즐겁고 열정적으로 자기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활용하는 고객들은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발견
-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www.coinstreet.org)
 - 런던 템즈강 남부에 위치한 Coin Street 지역(Waterloo Bridge와 Blackfriars Bridge 사이)을 사람들이 주거, 근무, 방문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이윤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공적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상업지역 운영, 정원 관리, 안전, 시설 관리 등을 위한 staff team을 고용하여 운영
 - 개발된 주거지는 Mulberry(1988), Palm(1994), Redwood(1995), Iroko(2001) 등 4개의 housing co-operatives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적절한 rent의 임차형태로 운영
 - Oxo Tower Wharf는 중층부의 주거지를 제외하고 상층부에 레스토랑과

바, 1~3층은 디자인 스튜디오, 상점, 갤러리 등으로 각각 활용

- 매년 25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공원과 강변 산책로를 환경 및 사람 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Coin Street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는데 런던의 유명 문화 festival로 자리매김
-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실내외 활동 공간, 창조적 예술활동공간, 사회적 모임공간 등을 제공

○ Bikeworks(www.bikeworks.org.uk)

- 2006년 9월 5,000파운드의 charity money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 HSBC에서는 Bikeworks를 best social enterprise로 선정

-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통해 런던의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낙후된 동부 런던 지역의 인력 고용과 훈련 기회 제공

-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며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확보

· 경쟁상대인 민간 기업의 고객에 대한 폐쇄적 정보 제공, 비싼 서비스료에 비해 경쟁우위 확보, 활용해 본 소비자들의 호감이 새로운 고객으로 연결

- 사장(director)인 Jim Blakemore는 매우 활동적인 젊은 사업가로서 과거 음악에 관한 일과 다른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사회적 기업인 Bikeworks를 창업하여 운영 중

· 현재 수입의 94%는 사업을 통해 창출하고 나머지 6%는 grant

- 종업원은 fulltime 16명, 프리랜서 30명 정도이며 종업원 임금은 핵심 인력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 못지않은 월 2,000파운드 수준
 - 수익은 분배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계속 투자
 - 앞으로 런던 지역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으로 social franchising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도모
- volunteer를 활용하여 건강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전거의 저변 확산
- 기업에서 만난 volunteer의 일원인 Mr. Chris는 68세의 고령이고 일당 5파운드의 급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업무에 즐겁게 임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피력